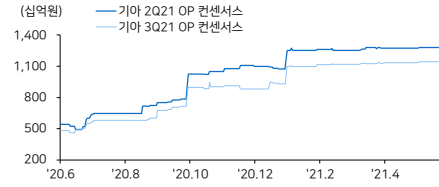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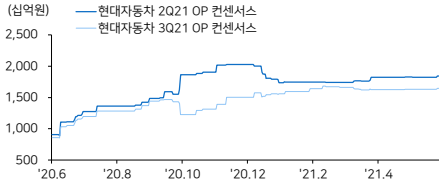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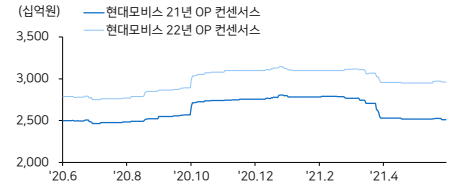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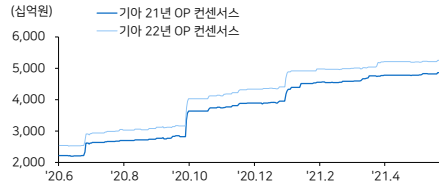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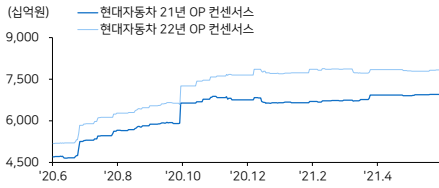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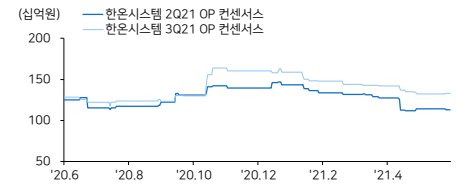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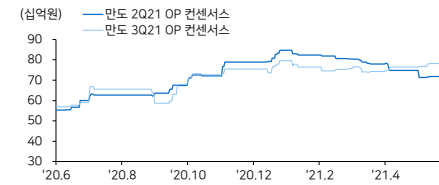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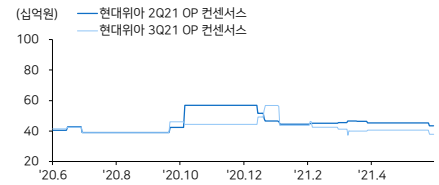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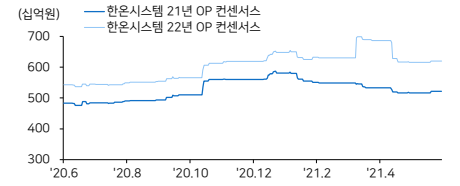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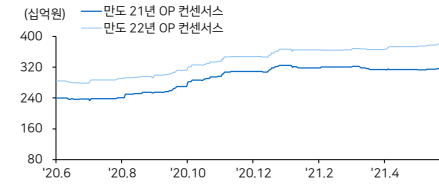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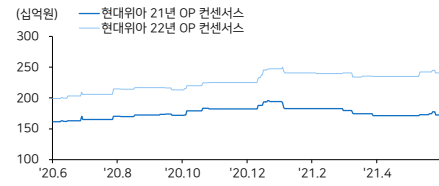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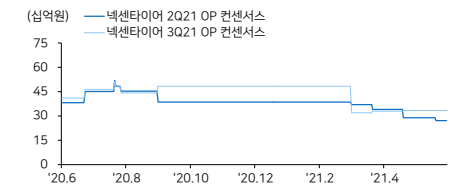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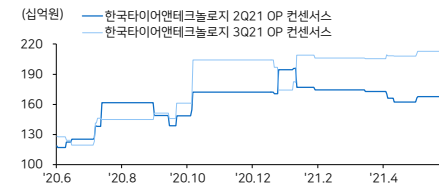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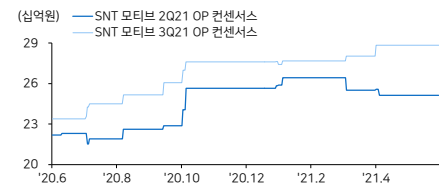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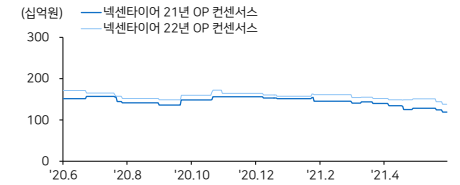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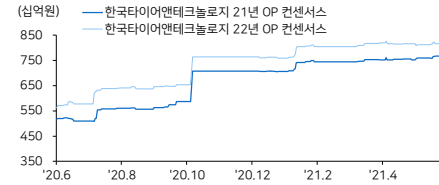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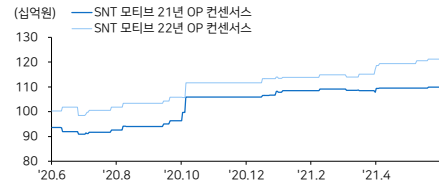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체코공장 전기차 생산기전 전환 가속도...코니EV 7951대 생산 (THE GURU)

현대자동차 체코공장(HMMC)이 전기차 생산기전으로 전환에 속도를 내는 중. 체코 정부의 유럽 전기차 생산 거점 변환 동로 드럼에 보조를 맞춰 전기차 생산량을 크게 늘렸다. 향후 전기차 비중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
<https://bit.ly/2T9SsQM>

韓 물류·美 여객...현대차 UAM '투 트랙' 가동 (전자신문)

현대차그룹이 UAM 사업 전략을 한국은 물류 중심, 미국은 여객 운송 중심으로 한 '투 트랙' 전략으로 구체화할 전망이다. 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는 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수소연료전지를 핵심으로 쓰고, 미국은 리튬이온계 이차전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https://bit.ly/3jjJWJV>

메타버서서 쓰나미 N 시승...현대차 MZ 세대 공략 박차 (스포츠투아)

현대자동차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제트(NAVER Z)의 '제페토'와 협력 통해 가상공간에서 쓰나미 N 라인을 시승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플랫폼 노출을 통해 잠재 고객인 MZ세대와 소통을 활발히 한다는 전략.
<https://bit.ly/3heCmNM>

기아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미국 증시 상장 계획 (한국경제)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Pony.AI의 제임스 팅 CEO는 미국 뉴욕증시 IPO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IPO건 투자은행 부문 부회장 로렌스 스탠튼을 CFO로 영입할 예정이다. Pony.AI는 '27년 자율주행차량 대량공급을 목표로 함.'
<https://bit.ly/3A2Txxo>

현대위아, 북미 딜러망 확장 가속도...상반기 3곳 가세 (THE GURU)

현대위아는 상반기 딜러사 3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북미 딜러망 확장 가속화 중. 북미 딜러 네트워크 지속 확장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생산 투자 대비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 하반기에도 새로운 파트너사 영입 계획.
<https://bit.ly/2U3O0eQ>

현대차·기아, 유럽서 전기차 누적 판매 20만대 돌파 (연합뉴스)

현대차와 기아는 유럽 시장에서 올해 5월까지 총 22만 7천여대(현대 13만 1천대, 기아 9만 6천대)를 판매하며 20만대를 넘어섰다. 전기차 판매량은 YoY 99.5% 늘어난 4만3천865대가 판매돼 처음으로 연간 10만대 판매를 넘어설 전망이다.
<https://bit.ly/3heWEGS>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기술에 1.1조 투입 (서울경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53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정부 예산 850억 4,000만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27년까지 총 1조 974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https://bit.ly/3AdT8FN>

폭스바겐, 2035년부터 유럽서 내연기관차 판매 안 한다 (AP신문)

폭스바겐은 "2033년과 2035년 사이에 유럽 내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0년부터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전세계 공장을 친환경 전기로만 가동할 예정이다.
<https://bit.ly/3xVbGQR>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 아닌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